

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. 다음의 4가지 문을 열어보십시오.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읽으십시오.
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.

| | |
|--|--|
| <p>포기하지 말고 입맛 나는 인생을 사십시오.</p> | <p>입맛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웃음으로 입맛 나는 인생을 사십시오.</p> |
| <p>1. 도전함으로 사십시오. “노르웨이에서 라면을 먹고 싶다면 미스터리(Mr Lee)를 찾으십시오. 6.25 때 전쟁고아였던 이철호씨는 갓은 고생 끝에 노르웨이의 라면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. 그의 라면이 노르웨이 라면 시장에 90%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</p> <p>2.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.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. “포기하지 말라, 절대 포기하지 말라, 절대, 절대 포기하지 말라.”</p> <p>3.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.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. “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.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.”</p> | <p>(개드립) 간디가 어딜 간디? 망고가 얼망고? 베이징에 가면 고기 냄새 베이징. 장보고가 장 보고 오래. 나 졸린데, 자두 먹고 자두 되니? 단호하시네 단호박이세요? 비키니 입으면 사람들이 다 비키니?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다면서.</p> |
| <p>소통하며 입맛 나는 인생을 사십시오.</p> | <p>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먹으며 입맛 나는 인생을 사십시오.</p> |
| <p>1. 관계의 회복을 통해 삶을 누리십시오. 일본의 <심야식당>(감독 마쓰오카 조지)은 음식에 심리학을 담은 영화입니다. 일본 국민 배우 고바야시가 오르는 “심야식당은 어쩌면 30~40대 여성을 위한 공간”이라며 “그들은 아이의 어머니로, 남편의 아내로, 부모님의 딸로 자신만의 공간이 없다. 마음에 있는 말을 쏟아 낼 공간이 필요하다.”고 했습니다.</p> <p>2. 팍팍한 세상을 견뎌내는 입맛 나는 인생을 누리십시오. 「라면이 없었더라면」이라는 책의 공저자 박성원은 “짜기로 말하면 짜개가 더 심각하다. 밀가루야 어디 라면뿐인가. 단돈 육~칠백 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식품의 미덕을 무시하는 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.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인스턴트 라면으로 펍펍한 세상을 견뎌오지 않았는가.”</p> <p>3.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소통하십시오. 오리온 초코파이 정(情)은 감성마케팅의 산물입니다. “말하지 않아도 알아요~” CM송은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. 군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. 입속에 달콤함이 소통의 정을 불러 넣었습니다.</p> <p>4. 인생을 전문가에게 미루지 말고 “나도 할 수 있다”의 주인공으로 소통하십시오. 요리전문가 백종원씨는 “요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”의 에너지를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. 그는 충청도 사투리로 전문 요리를 비전문가의 손에 안겨 준 소통의 마술사입니다.</p> | <p>1.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. (요 20:31) “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”</p> <p>2. 성경 말씀을 먹어보세요.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말씀의 진리와 만난다는 것입니다. 우리 인생 사건이 말씀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(계 10:9) “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”</p> <p>3. 교회로 출석하시어 말씀을 먹어 보십시오.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 내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곳입니다. (마 16:18) “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”</p> |

주님 감사합니다. 4가지 문을 열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.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